

보도

후마 ‘함께 후마’, 선본 당선 … 정경대학 후보자 없어 또 연기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학내 보궐선거 동향

유정아 기자 yuangel@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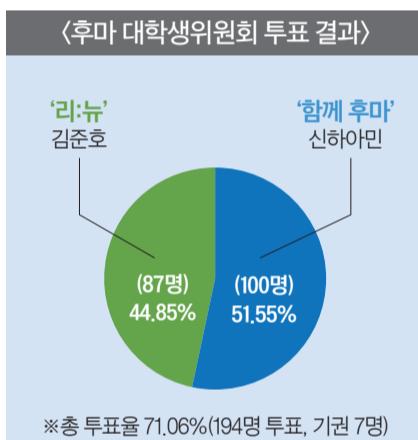
#. 3월은 지난해 말 당선된 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가 개강과 함께 학생과 마주하는 시기다. 하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는 이제 갓 당선자를 확정했고, 정경대학은 여전히 선거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기구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내에 진행되고 있는 보궐선거 동향과 지금까지의 결과를 짚어본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대학생위원회의 경우, 재임 중이던 황선경(정치외교학 2011) 전 위원장(제6기)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작년 11월부터 대표자 부재 상황이었다. 급기야 작년 12월 진행되었던 제7기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도 후보자 등록 마감 당일 후마 대학생위원회에 가입, 출마했던 안명진(사회학 2014) 군이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선거 자체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후마 대학생위원회는 12월 9일 개최된 총회에서 김별님(아동가족학 2012)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는 김준호(정치외교학 2013), 안명진(사회학 2014),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위원을 선정하며 임시체제에 돌입했다.

후마 대학생위원회 약 4개월 만에 제7기 위원장 당선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기 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9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했다. 후마 대학생위원회 내에서 지원자를 받아 무작위로 선발된 선관위는 김별님 선관위원장과 이정이, 최혜경(아동가족학 2015), 민혁(경제학 2014), 최영범(정치외교학 2015) 선관위원 등으로 꾸려졌다. 그리고 선관위는 같은 날인 9일에 보궐선거 공고를 게재했고, 이후 16일 9시부터 18시까지 입후보자를 모집했다. <대학주보 온라인 - 후마 대학생위원회, 총회 전 신규 위원 가입 시기 놓고 내부 갈등>

그 결과, 제7기 위원장 보궐선거에 ‘함께 후마’ 선본의 신하아민(국어국문학 2010) 위원과 ‘리:뉴’ 선본의 김준호(정치외교학 2013) 위원이 입후보했고, 16일 저녁 1차 룰 미팅에서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어 22일



① 지난 8일 청운관 712호에서 후마 대학생위원회의 2016학년도 1학기 위원총회에서 '후마 대학생위원회 회칙 개정'과 '제 7기 후마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 일정'을 논의했다.

② 현재 정경대학 학생회장직은 공석으로, 강주리(경제학 2014) 경제학과 학생회장이 정경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강 권한대행인은 “정경대학과 경제학과 모두를 신경 쓰다보니 무리가 있다”며 “현재 권한 대행업무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터 이틀 간 제48대 정경대학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으나 입후보 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제48대 정경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지난해 카카오톡으로 투표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세칙을 개정한 문제에 대해 절차의 부적절성이 지적되면서 정책투표를 시행하여 ‘크레센도’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정경대학 학생회장 보궐선거는 제48대 선관위가 정책투표 결과에 따라 유예를 선언한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5월로 미뤄질 예정이다. '5월'이라는 선거시점에 대해, 정경대운영위원회 측은 "입후보하려는 학우들에게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다소 긴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며 "3주 가량의 선거기간이 중간고사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대학 제48대 학생회장 선거 또 다시 5월로 미뤄져

후마 대학생위원회 선거 운동은 3월 17일 8시부터 22일 18시까지 진행됐으며, 투표는 후마 대학생위원회 정회원 273명을 대상(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지난 23일 8시 30분부터 24일 18시까지 모바일 투표로 시행했다. 투표 마감 직후 진행된 개표 결과, 총 투표율 71.06%(194명 투표, 기권 7명) 중 51.55%(100명)의 득표율로 ‘함께후마’ 선본의 신하야민 후보가 당선됐다. 신 당선자는 “4년 전 시민교육에서 사전의 정의를 바꿨던 일을 기억한다”며 “그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일들을 변화시키는 후마 대학생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었던 시간강사 처우문제를 알리고, 연대를 형성하겠다는 ‘선생님, 함께 가요!’와 총회 운영 관련 회칙을 제정하겠다는 ‘민주주의’ 항목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경대학 학생회의 경우, 지난 14

현재 정경대학 학생회장직은 공석이며, 강주리(경제학 2014) 경제학과 학생회장이 지난 2월에 열린 정경대학 학생대표자 회의의 동의를 근거로 정경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장 자리가 공석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대위원장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 과중, 정경대 자치사업 진행의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권한대행인은 “정경대학과 경제학과 모두를 신경 쓰다 보니 무리가 있다”며 “현재 권한대행업무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권한대행인이 선출한 해당 집행국은 학생회장 당선 이후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집행국원 모집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생회 업무 부담이 오롯이 강 대행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본래 3월에 학생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타 대학과 달리 정경대학에는 연간 학생자치활동 계획이 전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 대행인은 이에 대해 “자치회비가 3월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의 사업에 쓰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사업진행을 꺼려왔다”며 “선거가 재차 유예된 이후 자치사업 진행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경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또 다시 유예되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